

강진군 빈집 42채 수리해 월 1만원 임대

소유주에 무상 임대 리모델링
귀농 귀촌 이주민에 제공
다양한 인구 유입책 전국서 관심



강진원 강진군수가 리모델링하고 있는 빈집을 찾아 급수 등을 점검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이 도시민 인구 유입을 위해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연말부터 월 1만원에 파격 임대할 계획 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빈집 리모델링은 소유주가 빈집을 무상으로 군에 임대하면 장기로 5년 임대 시 5000만원 등의 사업비를 지원해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강진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단기의 경우에는 6년 계약으로 연중 군에서 10개월, 집 소유주가 2개월 사용하는 방식이다. 장·단기간 강진군에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저렴하게 집을 제공한다. 단기의 경우 1개월 단위로 임대할 예정이다. 군은 11월 기준으로 임대할 빈집 42가구를 선정했고 그 가운데 4가구를 준공했다. 현재 12가구가 공사 중이고, 17가구는 실시 설계 중이다. 총 42가구 중 일반 귀농 귀촌인에게 제공되는 빈집은 1차 12가구, 2차 13가구로 총 25가구이다. 농산어촌 유학의 경우 17가구로, 기존에 준공된 집은 농산어촌 유학에 먼저 제공할 예정이다. 빈집 입주 대상은 강진군의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공고일 기준 강진군으로 전입한

지 2년 이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군에서는 연령, 전입 예정 가구원 수, 경제활동 등을 우선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들이 직접 집과 마을 주변 환경을 보고 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집 보러 가는 날'도 운영한다. 모집은 리모델링 공사 준공 이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12월 말까지 예상된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정책에 대해 울산 동구, 광주 북구, 경북 구미, 경북 영양, 경기 양평 등 전국 광역자치체와 기초자치체, 의회 등에서 방문

이 잇따르고 있다. 강진군은 이 같은 파격적인 주거 지원 외에도 일자리, 육아 등 다양한 분야를 함께 지원해 도시민들이 강진으로 정착하는 데 아낌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월 1만 원 리모델링 빈집 입주 관련 문의가 하루 평균 10통 넘게 이어진다"며 "단순문의 외에도 입주에 대한 강한 의지로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15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함평군 국회 찾아 내년 현안 국비 반영 요청

함평군이 하수관로 정비와 주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위한 내년 예산 확보에 나섰다. 함평군은 9일 이상익 함평군수가 국회를 찾아 지역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군수는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만나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서삼석 국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교흥 의원, 강훈식 의원, 이계호 의원 등을 만났다. 이 군수는 국고 예산 확보 중점 대상 사업과 관련, 당위성과 타당성을 설명했다. 이 가운데 주민 편의를 위한 국비 사업에 관한 연차적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현안 사업은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



이상익(가운데) 함평군수가 9일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만나 지역 현안 사업의 내년 국비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수관로 정비사업(2차)(254억원) ▲함평-해보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52억원) ▲신광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251억원) ▲주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공모)(100억원) 등 총 6개 사업이다. 이 군수는 총사업비 657억원 중 내년 사업비 107억원을 건의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장성군 밀·콩 논 이모작 재배기술 현장 연시회

장성군이 밀과 콩 등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핵심 기술 보급에 나섰다. 장성군은 최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밀·콩 논 이모작 안정생산 핵심기술 현장 연시회'를 열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한중 장성군수와 서효원 국립식량과학원장, 농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장성군은 밀과 콩 재배 때 침수와 습해 피해를 예방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 배수 개선 기술과 밀·콩 심품종, 콩 수확·밀 파종 기계 이용법, 자동 조항장치, 무인 항공기(드론) 방제 기술 등을 선보였다. 장성지역에서는 올해 장마철 집중호우가 발생해 밀·콩 생산 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 밀·콩은 국내 생산량이 적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기준 식량 자급률은 밀 1.1%, 콩 23.7% 수준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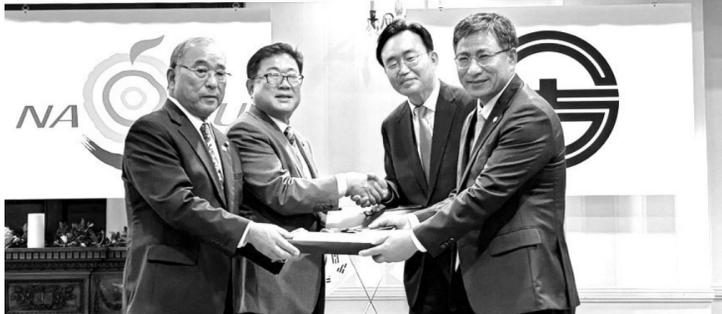
김한중(오른쪽 세번째) 장성군수가 최근 열린 '밀·콩 논 이모작 안정생산 핵심기술 현장 연시회'에서 새 품종과 재배 기술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벼 논에 밀·콩 생산 면적을 확대하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밀 8%, 콩 43.5%의 자급률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밀·콩 자급률 향상은 쌀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장성군 측은 설명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연시회가 밀, 콩 식량 자급률 제고 및 농가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군은 밀과 콩 재배 때 침수와 습해 피해를 예방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 배수 개선 기술과 밀·콩 심품종, 콩 수확·밀 파종 기계 이용법, 자동 조항장치, 무인 항공기(드론) 방제 기술 등을 선보였다. 장성지역에서는 올해 장마철 집중호우가 발생해 밀·콩 생산 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 밀·콩은 국내 생산량이 적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기준 식량 자급률은 밀 1.1%, 콩 23.7% 수준에 불과했다.

'배로 맺은 30년 우정' 나주-구라요시市 협력 더욱 강화

日서 자매결연 30주년 기념식



윤병태(오른쪽 두 번째) 나주시장과 이상만(오른쪽 첫 번째) 나주시의회 의장, 히로타 카즈야스 구라요시장이 '자매결연 30주년 기념 선언문'에 공동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달콤한 '배' (梨)가 맺어준 한일 양국 도시 간 우정이 미래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로 이어지게 됐다. 한국과 일본의 최대 배 주산지인 전남 나주시와 일본 돗토리현 구라요시시가 지난 1993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30주년을 맞아 농업·경제·교육·문화·인적 분야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나주시는 윤병태 나주시장이 지난 6일 구라요시를 방문해 '나주-구라요시 자매결연 3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념식엔 이상만 나주시의회 의장, 후쿠타니 나오미 구라요시의회 의장, 가메이 가즈요시 돗토리 현 부지사, 주고베대한민국총영사관 조은아 영사가 참석해 자매결연 30주년을 함께 축하했다. 구라요시 공식 초청으로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병태 나주시장은 히로타 카즈야스 구라요시시장과 미래지향적인 교류·협력 내용을 담은 '자매결연 30주년 기념 선언문'에 공동으로 서명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농업·경제, 체육, 교육, 문화·예술 등 4개 분야 교류와 협력 확대를 담았다. 일본 돗토리현 중부지역의 중심도시인 구라요

시는 배, 수박, 멜론 주산지다.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유서 깊은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해 '작은 교토'로도 불린다. 조선시대 '작은 한양' (소경)으로 불릴 정도로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나주시와 닮은 점이 많다. 양 도시는 지난 1993년 7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농업, 교육(청소년 홈스테이) 등 다방면에서 교류·협력관계를 30년째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더욱 긴밀한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구라요시 방문을 통해 양 도시가 미래를 향한 상호 협력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강조했다. 히로타 카즈야스 시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됐고 10월부터 인천-요나고 직항 항공편도 운항이 재개돼 이전처럼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담양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20일까지 추가모집

담양군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오는 2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답례품 공급업체는 담양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로써 답례품으로 선정된 품목을 생산·제조 또는 공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모집 분야는 고액기부자 명예의 전당 동판 설치와 축제공품, 가공식품, 텃밭 가꾸기, 관광·문화 체험 상품 등 그동안의 선정 품목들도 포함된다. 답례품 공급업체 접수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하며, 담양군청 참여소통실을 방문해 필요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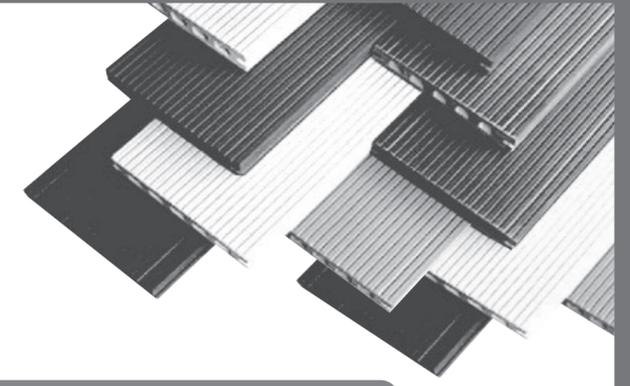
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누리집(https://www.damyan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양군은 38개 품목, 44개 업체, 100개 이상의 상품이 답례품으로 등록돼 있으며 지역상품권, 쌀, 한우, 한과, 전통주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지역의 특색을 담은 상품뿐만 아니라 관계 인구의 방문을 늘릴 텃밭 가꾸기, 관광·문화·체험 상품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